

파계사 비니정맥 전계식 하던 날



이날 전계제자들에게는 석가모니부처님으로부터 이어져온 계맥을 정리한 전계첩과 의발이 수여됐다.

■ 파계사 비니정맥 전계식의 의미와 계맥 흐름

‘비니’란 계율을 뜻하는 산스크리트 비나야(Vinaya)의 의역. 따라서 비니정맥 전계식은 계율의 바른 맥을 전수하는 의식이라는 뜻이다. 전계식이 전강의식처럼 혼란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밖에 파계사에서 거행한 비니정맥 전계식에 교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번 전계식은 신라말 심지 율사 이후 끊어졌던 계맥을 복원 정립하여 계단위원장 보성 전계대화상의 입회하에 한국불교의 전통 계맥을 공식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 겸익-자장-송제-진표-영심-심지 율사까지의 계맥은 밝혀져 있지만 그 후대에는 계맥이 온전히 정립돼 있지 않다.

성월-운봉-일봉-자운-성우·철우 스님 맥 이어져
신라말 심지 율사 계맥 이어가기 위한 공식적 시도

파계사는 이날 근래 비구계를 전수받은 스님들의 계맥을 살펴 만하 스님이 중국 창도 율사로부터 받은 계맥이 성월-운봉-일봉-자운 스님으로 이어져 오는 한국불교의 계맥을 정립한 계맥도를 처음으로 소개했다.

철우 스님은 계맥을 밝히기에 앞서 “이 계맥은 자운 율사의 계맥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이들이 전수 받은 계맥과 다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중국의 <중화불학인명사전(1988년 판)>, 범어사 <동계록>, 개인이 전수받은 계첩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 계맥도에 따르면 구한말 성월 스님의 계맥이 용성·운봉·한암 스님에게 이어지고, 용성 스님에게 이어진 맥은 다시 경하스님을 거쳐 동산 스님에게 이어졌다. 또 운봉스님의 맥은 자운 스님에게 종수·일타·지관·성우·철우 스님에게로 이어졌다. 한편,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은 창도 율사로부터 별도로 이어진 금강산 계맥을 잇고 있다.

철우 스님은 “중국에는 방장의 기록을 통해 그 계맥정립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계나 전범이 스승과 제자 사이 1대1로 이어져 그 맥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오늘 전계식 이후로 한국불교의 정확한 전통 계맥의 전수가 이루어 질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 전계제자들은

- 지운 스님** : 운성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고, 교육원 교재편찬위원 송광사 강주 행사교육원 교수와 단일계단 구족계 산림 교수를 역임했다.
- 경성 스님** : 해인총림 대교과,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해인총림 포교국장이며 현 조계종 소청심사위원이다.
- 해능 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해인총림유원 영산유원을 졸업했다. 행사교육원 습의도감과 교수, 단일계단 교수를 역임하고 현 해인총림 유원장 소임을 맡고 있다.
- 도관 스님** : 해인총림 강원을 졸업하고 파계사 영산유원 유장을 공부했다. 제방 선원에서 여러 해 안거를 성만했으며 현재 지지사 삼성암에서 정진중이다.
- 진묵 스님** : 통도사 강원에서 대교과를 졸업하고 파계사 영산유원을 1회로 졸업했다. 영산유원 비니원 연구 과정을 마치고, 파계사 강원 학감을 역임했다.
- 해경 스님** : 오대산 상원사에서 출가하여 해인총림 대교과, 유원을 졸업했다. 영산유원 비니원 연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월정사 기획국장 소임을 맡고 있다.

“굳게 지켜 휘범치 않으리니..”

성우·철우 스님, 제자 6명에게 ‘비니정맥’ 전계

“이제부터 이 몸이 불신(佛身)에 이르도록 금계(禁戒)를 굳게 지켜 휘범치 않으리니, 원컨대 모든 부처님은 증명하여 주옵소서.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물러나지 않으리다.”
11월 13일 대구 팔공산 파계사 설법전에는 한국불교의 바른 맥을 이어나갈 6명 스님들의 서원이 엄숙히 울려 퍼졌다. 조계종 전계대화상 보성 스님을 비롯해 해인사 율주 종진 스님, 통도사 전계화상 해남 스님, 부산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 등 종단 율원 관계자와 사부대중 3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계율의 정맥을 전수하는 ‘비니정맥(毘尼正脈) 전계식(傳戒儀式)’이 거행됐다.
이날 전계식은 파계사 영산유원의 성우(파계사 주지) 스님이 제자 지운·경성·해능·도관 스님에게, 철우(영산유원장) 스님이 제자 진묵·해경 스님에게 자운 스님의 계맥을 각각 전하는 의식으로 치러졌다.
자운 스님은 1981년 단일계단을 창설하고 초대 전계대화상을 역임한 조계종의 대표적 율사.
삼귀의, 반야심경봉독 후에 계단위원장 보성 스님과 전계 스승 성우, 철우 스님이 계단에 등단했다. 철우 스님은 “그동안 공식적으로 전해 내려온 의식절차는 없다”며 먼저 이날 전계식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임을 밝혔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머리 숙여 절하옵고 삼가 아뢰옵니다” 성우 스님의 고불문이 이어졌다.
“전계 받고자 하는 제자들이 지금 부처님의 정통계맥을 받으려 하옵니다. 청정한 계맥이 이어져 대열반에 이르도록 금



전계식을 마치고 전강 스님과 제자들이 한자리서 기념촬영. 아랫줄 왼쪽부터 해남·종진·보성·철우·성우·혜총 스님. 뒷줄 왼쪽부터 도관·진묵·해능·지운·경성·해경 스님.



전계첩은 후대 율사에게 대대로 전해져 정통계맥의 전수를 증명한다.

생에 맹세코 부처님의 해명을 잇도록 발심 정진할 것이오니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이어 전계제자 6명의 이력이 하나하나 소개됐다. 이날 전계식은 계맥 설명에 이어 전계 제자 서원, 전계첩과 의발 수여, 축사, 격려사, 법어, 전계율사 인사, 사홍서원으로 진행됐다.
전계첩과 의발을 수여받은 율사들의 모습에는 목숨을 다해 부처님의 계맥을 잇겠다는 굳센 서원의 빛이 역력하다.
이날 전계대화상 보성 스님은 법어를 통해 “우리종단의 크나큰 일꾼을 오늘 여기에서 출산하게 됐다. 영광스런 이 시간을 간직해 지구촌에 불교를 펼침에 부처님 제자로 부끄럽지 않는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40년간 자운 스님을 모셨던 혜총 스님은 축사를 통해 “오늘 6명의 율사가 탄생한 것은 바로 우리의 광명이 탄생한 것과 같다”고 기뻐했다.
해남 스님 역시 “앞으로 전계를 주고 전계를 받는 분의 소임이 막중한 줄 알고 서로 탐마하면서 한국불교를 잘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며 이날 전계 제자들의 굳은 계행을 축원했다.
이날 계맥을 전해 받은 전계제자들은 “10여년 전의 자운 스님의 법음을 이은 은사 스님들과 더불어 한국불교의 근본인 계율을 확립하는데 진력을 다하겠다”며 한국불교의 근대 계맥을 이은 것에 대해 감격스러워 했다.
대구 파계사 = 배지선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www.drsoju.com

전문 역학인을 양성하기 위한 온라인 아카데미
프로 사주박사가 문을 활짝 열고 역학 고수를 꿈꾸는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 사주박사 (www.drsoju.com) 는...

- * 프로 사주박사는 일반인들이 사주를 보는 곳이 아닙니다.
- * 프로 사주박사는 역학에 대해 수준 높고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각 분야의 권위있는 선생님이 체계적인 강의와 토론을 병행하는 역학 전문 포털 사이트입니다.

1. 프로 사주박사가 회원님들께 드리는
파격적인 특전 - '사주박사 6.0' 사용

- * 프로 사주박사의 회원(월 회비 36,000원)이 되면 지난 10여 년 동안 전문 역학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역학 전문 프로그램 '사주박사 6.0'을 사용할 수 있는 특전을 누리게 됩니다.
- * 역학 전문가용 최신 프로그램 '사주박사 6.0'은 현재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역학 프로그램 중 오류를 완벽하게 수정, 보완한 최신 프로그램으로 개별 구입 시 가격이 150만원이나 하는 고가 프로그램입니다.

2. 회원님의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관리
해드립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역학에 자신이 붙으면 개인 홈페이지 하나쯤 갖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프로 사주박사에서는 홈페이지를 만들고자 하는 회원님을 위해 저렴한비용 (초기개발비 6만원)으로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리고 정성껏 관리해 드립니다.

운명·미래·삼창

서울시 종로구 윤니동 98-5 삼환빌딩 3층 선도텔레콤 주식회사 Tel. 02)742-3025~8 Fax. 02)742-3023